

## 대구시 여고생의 교복변형에 대한 태도 분석

박효은\*, 조현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

## The Analysis of Students' Attitude toward Uniform Transformation of Female Highschool Students

Park, Hyo-Eun\* · Cho, Hyun-Ju\*\*

*Home Econom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atisfy students in adolescent trends of school uniforms and to provide them with useful material with matching current fashions by analyzing the attitude of students toward uniform transformation in female highschool students and investigating factors influencing on behaviors of uniform transform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30 students in Daegu with the basic ways of investigating such as depth interview and surve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udents agree to wearing school uniforms. As the main reason for wearing school uniforms, students put emphasis on peer pressure. It is also analyzed that the figure of students' body have some influence on the attitude of students toward wearing uniform while students' appearance have no influence on the attitude of students toward wearing uniform. Second, students showed high satisfaction in school uniforms. While students are satisfied with design and color of school uniform, they are not satisfied with practicality, economic efficiency and the quality of textile. Third, the study shows most students have experience of uniform transformation as a result of depth interview about actual condition of uniform transformation. Whereas students usually wear the jacket with its width and length shortened, they tend to lengthen skirt and unstitch pleat of skirt. Fourth, there are many reasons for uniform transformation as a result of depth interview with students. Transformation for satisfying aesthetic desire tops the list, followed by transformation for matching, transformation for peer pressure.

As shown by the results above, every school needs to make various efforts to satisfy students, teachers

---

1) 교신저자 : 조현주 (pgio@knu.ac.kr)

and parents by considering and using students' opinion in order to choose the better school uniforms. In addition, the study related to school uniform transformation need to have more various investigating ways to acquire more authentic results such as expanding the subjects to not only students but also teachers and parents and in-depth comparison between subjects.

주제어(Key Words) : 주생활교육 연구(Housing Educational Research),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가정과교육(Home Economics Education), 주생활교육 일반(General Perception of Housing Education), 교수·학습연구(Research on Teaching·Learning Plans)

## I.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속하여 신체적·지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며 새로운 사회와 주위의 기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데서 오는 심리적 불안이나 정서적 동요 등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의복을 통한 또래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동조욕구가 증가하게 되는 시기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복은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단정한 디자인으로만 제작되고 있어 유행과 개성을 추구하고 있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가치관의 변화와 발달된 통신기술로 인해 의복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교복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어 교복변형이라는 의복행동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복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또래집단의 유행을 따르기 위한 교복 변형행동은 현재 모든 청소년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부분의 학교는 과도한 교복 변형에 대해 다양한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교복을 지나치게 몸에 밀착하거나 축소·확대 변형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복변형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원인규명과 함께 교복변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교복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교복 선호도(유경숙, 1991; 박현숙, 1993) 및 교복 만족도(김양진·강혜원, 1992; 이상희 등, 1997; 임주희, 2004)에 관한 연구

가 주를 이루었으며, 교복변형에 대한 연구는 교복 변형 실태에 대한 연구(이혜경, 2000), 교복변형과 치수만족도 및 교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김혜정, 2001) 등으로 교복변형에 대한 원인 규명이 미흡하였고 주로 학생의 관점에서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자 고등학생의 교복변형에 대한 학생의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교복변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청소년들에게 만족스러우면서도 유행흐름에 부합하는 교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복에 대한 학생의 만족정도 및 만족·불만족의 원인을 살펴본다.

둘째, 교복변형에 대한 학생의 태도를 분석한다.

셋째,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는 여자고등학생을 상대로 교복변형의 실태 및 교복변형행동의 원인을 심층면접을 통하여 분석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교복 착용현황

연도별 교복 착용률은 1987년 4.6%, 1988년 7.8%, 1989년 12.9%, 1990년 20.5%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다가 91년에 74.3%의 비율로 급증하게 되고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종래의 교복이 어떤 소속감이나 통제성을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면 최근의 교복은 소속감과 함께 심미성이나 기능성 등을 더 고려하게 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3월 1일 전국 중·고등학교

<표 1> 여학생의 교복착용 현황

구 분	스커트 착용		바지 착용		스커트/바지 선택 착용		미착용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여 중	357	71.0	3	0.6	141	28.0	2	0.4
남녀공학중	1,231	72.1	12	0.7	365	21.4	94	5.5
여 고	434	84.1	1	0.2	78	15.1	3	0.6
남녀공학교	794	82.2	6	0.8	130	13.5	36	3.7
계	2,816	76.3	22	0.6	714	19.4	135	3.7

여학생의 96.4%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이 중 스커트 착용 학교의 비율은 전체의 76.3%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여중의 71.0%, 남녀공학중의 72.3%, 고등학교의 경우 여고의 84.1%, 남녀공학교의 82.2%로 여학생들이 스커트를 착용하고 있고, 스커트/바지를 선택 착용하는 학교는 19.4%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발표한 <표 2>의 시·도별 여학생 교복착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지역의 교복착용 현황은 2000년 3월 기준으로 102개 학교 중 100개 학교가 착용하고 있어 98%

의 착용률을 보이고 있다.

2. 교복변형에 대한 선행연구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재 교복은 편안함보다는 불편한 의복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심미성이 높으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교복이 마음에 들지 않고, 편안하지 못할 경우 교복에 대한 불만이 클 것이며, 나아가 학교

<표 2> 시·도별 여학생 교복착용 현황

시·도	학교수	교복 착용 현황			교복미착용
		스커트 착용	바지 착용	스커트/바지 선택착용	
서울	471	430	-	34	7
부산	186	152	-	26	8
대구	102	67	-	33	2
인천	117	16	-	100	1
광주	95	95	-	-	-
대전	89	89	-	-	-
울산	54	18	-	36	-
경기	567	458	-	109	-
강원	216	88	-	118	10
충북	152	101	2	42	7
충남	242	192	-	50	-
전북	260	156	5	51	48
전남	354	315	1	10	28
경북	386	290	9	73	14
경남	339	295	5	29	10
제주	57	54	-	3	-
계	3,687	2,816	22	714	135
비율(%)	100	76.3	0.6	19.4	3.7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부정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박영애, 1998). 이런 교복에 대한 불만족은 교복을 변형하여 입으려는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유행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고애란·김양진·심정은, 1999) 학교측의 생활지도 차원에서 심각한 학교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소은(2001)의 연구에서는 교복 변형 행동은 청소년들이 교복을 단순히 유니폼이라는 의미를 넘어 하루의 절반정도를 착용하고 있는 하나의 의복으로 인식함으로써 교복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교복 변형(수선)의 경험이 있는 여고생의 비율은 박정희(1998)의 연구에서는 82.3%, 이해경(2000)의 연구에서는 52.7%, 이소은(2001)의 연구에서는 64.9%로 나타났으며, 이에경(2006)의 연구에서는 남녀 합하여 58.1%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학교 유형에 따른 교복의 변형을 살펴보면 남녀공학학교에서는 스커트의 길이를 줄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스커트를 짧게 변형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해경, 2000).

교복변형(수선)의 이유를 살펴보면 박정희(1998)의 연구에서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바느질한 곳이 뜯어져서', '유행에 맞게 입으려고'의 순이며, 이해경(2000)의 연구에서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치수가 맞지 않아서', '유행'의 순이었고, 이소은(2001)의 연구에서는 '자기 체형에 맞게 고치면 키가 커 보이고 날씬해 보이므로', '교복이 너무 크게 나와서',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길이가 너무 길어서'의 순으로 교복 변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애란·김양진·심정은(1999)의 연구에서는 '교복이 체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친다'의 이유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경(2006)의 연구에서는 교복변형의 이유로 유행이 약 20%, 치수에 대한 불만이 60%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들을 살펴볼 때 고등학생들이 심미성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교복이 체형에 맞지 않거나, 치수가 너무 크게 나오든 등 치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교복변형 실태를 보면 교복변형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스커트 길이이며 스커트 폭과 재킷의 품과 길이 줄이는 것도 비교적 많은 수가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교복변형은 전반적으로 몸에 밀착된 형태로 교복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청소년들이 행한 자기 학교 교복에 대한 평가를 보면 교복 디자인의 미적인 측면,

활동성, 교복의 맞춤새, 개성추구 제한에 대한 불만족이 많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만족으로 인해 교복변형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애란 등, 1999). 이경자·김용숙(1995)의 연구에서는 교복이 청소년의 개성이나 미적 감각을 키우기 어렵고, 활동성이 낮으며 추위나 더위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는 기능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황진숙 등(200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교복변형이 독특하고 개성적인 이미지 보다는 단정한 이미지나 클래식한 이미지를 지향하고 있어, 독특한 이미지와 개성을 선호하는 청소년은 교복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교복을 많이 변형하게 됨을 보여주었다. 청소년의 교복변형 현상이 보편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는 것을 하나의 비행행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복착용에 대해 '단정하고 학생답게 보인다', '학생지도가 용이하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적다' 등의 이유로 교복착용을 긍정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이경자, 1995).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는 것이 단순히 비행 및 반항적 행동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자신을 보여주는 새로운 표현방식이라고 이해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교사와 학생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복변형행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실태는 청소년들의 교복변형행동과 교복개선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소재 3개 여자고등학교 학생 각 10명씩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06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달간 이었고, 조사방법은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응답자의 신체사이즈 및 교복사이즈, 교복착용에 대한 선호, 교복만족정도, 교복변형 경험의 유무 등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택강요형 및 자유응답형 문항을 만들어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빈도분석 하였고, 학생들의 교복 만족과 불만족의 원인, 교복변형의 실태 및 원인, 교복디자인 개선에 대한 의견은 심층면접을 통해 연구자가 별도로 면접지를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표 3〉 학생의 교복착용 찬성이유

찬성 이유	빈도
옷입는 것에 대한 걱정을 덜어준다.	16
사복을 입게될 때 생기는 경제적 부담과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다.	9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이 억제된다.	4
단정하고 학생답게 보인다.	3
다른 친구들과의 일체감과 통일성,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2
교복은 학생때만 입을 수 있는 특권이다.	2
편하고 실용적이다	2

#### IV. 결과 및 해석

##### 1. 교복착용에 대한 태도

먼저 대상학생의 교복착용 현황을 살펴보면 응답자 모두 현재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고 답하여 2000년 교육부에서 발표된 대구지역 교복 착용률(98.4%)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착용에 찬성하는 학생이 30명 중 27명 이었고 심층면접을 통한 학생들의 교복착용 찬성이유는 〈표 3〉와 같이 분석되었다. 학생들은 교복착용에 대한 찬성이유를 대부분 2가지 이상씩 제시하였으며 각 이유에 대한 빈도는 아래 표와 같다.

교복착용에 대한 찬성이유로 가장 많은 의견은 ‘옷입는 것에 대한 걱정을 덜어준다’ 였는데, 이는 ‘다른 친구들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와 ‘사복을 입게 될 때 생기는 경제적 부담과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의견과 서로 관계가 있다. 청소년은 의복과 외모로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있어 의복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그들이 속해있는 집단의 관심이 자신의 심적 상태나 욕구보다 크게 작용하기에 자신의 의복이 또래집단과의 비교 대상이 되는 시기이다(김병미, 1985). 따라서 청소년기는 의복을 통한 또래 집단에 대한 소속과 동조욕구가 증가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교복은 그 착용만으로 옷을 잘 입는 학생과 못 입는 학생의 구분을 없애주어 옷 입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고 또래집단과의 동질감을 느끼게 되므로 교복을 선호하는 것

로 판단된다. 그 외의 교복착용 찬성 이유로 ‘교복은 학생때만 입을 수 있는 특권이다’, ‘편하고 실용적이다’, ‘학교를 알릴 수 있다’, ‘학생신분을 교복착용만으로 드러낼 수 있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교복착용에 대한 반대하는 소수 학생들이 밝힌 반대이유로는 ‘항상 똑같은 옷만 입어 단조롭다’, ‘교복은 개성을 표현할 수 없어 답답하며, 자유복을 입으면 자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과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 2. 교복 만족에 대한 태도

학생의 교복에 대한 만족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학생의 경우 만족이 33.3%, 보통이 60%, 불만족이 6.7%로 불만족보다는 만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교복만족정도 N(%)

구분	교복만족정도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학생	10(33.3)	18(60)	2(6.7)	30(100)

학생의 교복만족과 불만족의 원인은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하였다. 심층면접 시 만족과 불만족의 원인을 디자인, 색상, 소재, 실용성, 경제성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결과를 통해 얻어진 자료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의 비율은 〈표 5〉와 같다.

〈표 5〉 교복 요소별 만족과 불만족의 비율 N(%)

요소	만족	불만족	계
디자인	26(92.9)	2(7.1)	28(100.0)
색상	16(55.2)	13(44.8)	29(100.0)
소재	8(32.0)	17(68.0)	25(100.0)
실용성	5(23.8)	16(76.2)	21(100.0)
경제성	5(23.8)	16(76.2)	21(100.0)

디자인 면에서 교복에 대한 만족의 이유로는 ‘디자인이 예쁘다’, ‘단정하고 깔끔한 편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너무 단순하고 흔한 디자인이다’, ‘다른 학교와 너무 비슷하다’ 등의 불만족 의견이 있었다. 디자인 면에서는 만족 92.9%, 불만족 7.1%로 현재 착용하는 교복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 면에서는 만족과 불만족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만족의 이유로 ‘차분한 색상이라 싫증이 잘 나지 않아 좋다’, ‘상외와 하외의 색상이 잘 어울린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색상이 어두워 칙칙한 느낌이 든다’, ‘새롭고 밝은 색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등의 심미적 이유와 ‘하복의 경우 대부분 상외가 흰색이라 때가 너무 잘 탄다’ 등의 실용적 이유로 나뉘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채도가 낮고 비슷한 교복의 색상에 싫증을 느끼고 있으며 심미적·실용적 측면에서 교복 색상의 변화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재 면에서는 만족이 32.0%, 불만족이 68.0%로 만족보다 불만족이 더 많았다. 소재 불만족의 원인으로는 ‘가격에 비해 소재의 질이 좋지 않다’, ‘보풀이 많이 생긴다’, ‘땀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촉감이 좋지 않다’, ‘단추의 색상이 금방 변한다’, ‘너무 얇아서 비친다’, ‘통기성이 부족하다’, ‘때나 얼룩이 잘 묻는다’ 등을 들어 소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복의 소재가 주로 합성섬유로 국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용성 면에서는 만족이 26.8%, 불만족이 76.2%로 만족보다 불만족의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용성 면에서 만족의 이유로는 ‘교복에 적용되어 활동하기 편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불만족의 이유로는 ‘다림질을 해야 해서 귀

찮다’, ‘치마가 펠러이고 활동하기 불편하다’, ‘여유가 적어 움직이면 죄일 때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양장의 형태인 여자교복이 일반 캐주얼에 비해 여유분이 적고 소재 자체에 신축성이 없어 활동에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소재 자체가 드라이클리닝 및 다림질을 해야 하는 점 역시 실용성 면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경제성 면에서도 만족이 26.8%, 불만족이 76.2%로 만족보다 불만족의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하므로 세탁비가 많이 든다’의 이유와 ‘소재의 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등의 의견을 불만족의 원인으로 들었다.

연구 결과, 학생의 경우 현재 착용하는 교복에 대해 디자인 면에서는 만족하나 소재와 실용성, 경제성 면에서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교복변형 실태

면접에 참여한 학생의 90%가 교복변형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심층면접을 통한 학생들의 교복 변형 경향을 살펴 본 결과, 학생의 교복 변형의 실태는 교복변형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표 6〉과 같이 변형경험 ‘있다’가 80%, ‘없다’가 20%로 대부분의 학생이 교복변형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학생의 교복 변형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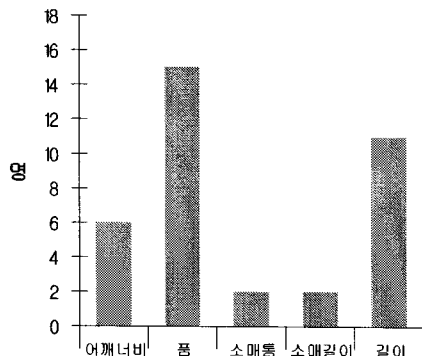
변형경험	빈도	퍼센트
있다	24	80.0
없다	6	20.0
계	30	100.0

교복을 변형한 학생들에게 변형한 부분을 상·하의별로 줄임과 늘임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아래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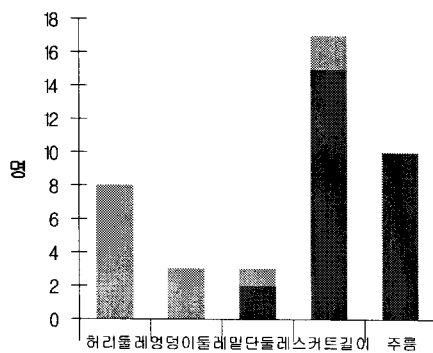
교복 상외의 경우, 허리둘레 및 가슴둘레 등 품을 줄인 빈도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길이를 줄였다는 응답자는 11명으로 나타났다. 어깨너비를 줄인 경우는 6명, 소매통과 소매길이를 줄인 경우는 각각 2명씩 있었다. 조사 대상자

중 교복 상의를 늘린 경우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연구 결과 교복 상의의 경우는 주로 품과 길이를 줄여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 시 나타난 다른 경향 중 하나는 교복 상의를 줄여입지는 않았으나 교복 구매 시에 자신의 사이즈보다 작은 것을 구입하여 별도의 수선비용을 들이지 않는다고 밝힌 학생이 4명이 있었다. 또한 어깨너비나 소매통을 줄인 빈도가 낮은 이유로는 수선집에서 소매를 새로 달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선의 까다로움 때문에 회피한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이유들이 해소된다면 변형을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 교복 상의 변형 경향



〈그림 2〉 교복 하의 변형 경향



교복 하의의 경우, 줄인 경우가 허리둘레 8명, 엉덩이 둘레 3명, 밑단 둘레 1명, 스커트 길이 2명으로 나타났다. 늘린 경우는 스커트길이 15명, 밑단둘레 2명, 주름을 뜯어 내 폭을 늘린 경우가 10명이었다. 따라서 하의의 변형 경향은 주로 스커트 길이를 길게 하고 주름을 뜯어내어 헐렁하게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상의는 대부분 줄이는데 반해 하의의 길이나 품을 늘이는 이유로 학생들이 밝힌 이유는 다리가 상의가 짧아지고 하의를 길게 함으로써 다리가 길어보이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유행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구 시내 여고생이 교복 상의의 경우 품과 길이를 줄여 입으며, 하의의 경우 스커트 길이를 늘이고 주름을 뜯어서 입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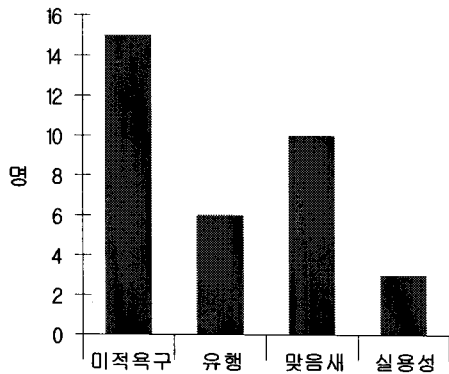
이혜경(2000)의 연구에서는 교복 상의의 경우 ‘옆선을 줄인다’가 74.9%, ‘길이를 줄인다’가 16.5%로 나타났으며, 하의의 경우 ‘옆선을 줄이거나 주름을 깊게 박음’이 62.9%, ‘길이를 줄임’이 32.9%로 나타났다. 이는 교복변형 경향이 상의의 품을 줄여 입고, 스커트 옆선을 줄이거나 스커트 주름을 깊게 박아 스커트 폭을 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김혜정(2002)의 연구에서는 여고생들의 교복변형 경향이 블라우스와 스커트 모든 부위의 품, 너비, 둘레 및 길이를 줄이고 스커트의 주름을 깊게 박거나 주름선을 길게 내려 전체적으로 짧고 타이트하게 입기 위해 교복치수를 변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혜경(2000)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교복 상의의 경우 길이와 품을 줄이는 것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지만 하의의 경우 줄이는 경우보다 오히려 길이와 폭을 늘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달라 교복변형의 유행경향이 전체적으로 작고 짧게 입는 것에서 현재 상의는 짧고 작게 줄이고, 하의는 넓고 길게 늘이는 것으로 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 4. 교복변형 원인

심층면접을 통한 학생들의 교복변형의 원인을 살펴본 결과, 크게 미적욕구 충족, 유행을 따라가기 위한 변형, 맞춤세를 위한 변형, 실용성을 위한 변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면접에 응한 학생들은 교복변형의 원인을 전반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였으나, 2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이유를 밝힌 경우도 있었다. <그림 3>은 이러한 교복변형 원인을 나누어 빈도수로 분석한 것이다.

<그림 3> 교복변형 원인



①미적 욕구 충족

교복변형의 이유로 미적욕구 충족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15명으로서 절반을 차지했다. 미적 욕구 충족도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변형한 것이 예뻐보여서’, ‘튀고 싶어서’, ‘여성스러워 보여서’, ‘몸매를 드러내고 싶어서’ 등 자신의 신체의 장점을 살려 아름답고 여성스럽게 보이기 위해 변형을 하는 것으로, 둘째는 ‘상의를 줄이면 다리가 길어 보이므로’, ‘폼을 줄여 입으면 더 날씬해 보여서’, ‘짧은 다리를 감추기 위해서’ 등 신체결점을 커버하기 위해 변형을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었다.

②맞음새를 위한 변형

연구결과 교복변형을 하는 이유로 ‘현재 교복이 몸에 맞지 않아서’라고 밝힌 학생이 10명이었다. 교복이 몸에 맞지 않아서 변형했다고 밝힌 학생들의 대부분은 상의나 하의가 ‘너무 커서’라고 대답했고, 모두 상의를 줄인 경우에 해당했다. 이는 학생의 치수 만족과 관계된 것으로서 학생들은 자신의 신체에 맞는 표준치수의 교복을 입더라도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김혜정(2002)의 연구에서는 교복 치수에 있어 만족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낸 부위는 변형률이 높은 부위와 일치하고 있었으며, 교복을 변형하지 않고 착용하면 치수가 커서 불만족을 느낀다고 밝혀 교복의 변형이유 중 하나가 ‘맞음새’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③유행을 따르기 위한 변형

교복변형을 하는 이유로 ‘유행’을 선택한 학생은 6명으로서, ‘친구들이 다 하기 때문에 안하면 오히려 이상하다’, ‘유행이므로’, ‘디자인이 유행에 뒤떨어져서’ 등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친구들이나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아 교복변형을 하는 경우가 세 번째로 많았다. ‘현재 교복의 유행스타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상의의 길이가 짧고 품의 여유가 거의 없으며, 하의의 길이를 길게하거나 주름을 뜯어내어 입는 것이 유행스타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교복 착용시간이 길어 통학용 이외에 외출용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대구지역 유행스타일인 상의는 몸에 꼭 맞고 하의는 여유를 둔 형태로 변형하여 교복을 예쁘게 입고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④실용성을 위한 변형

치마 길이를 늘이거나 주름치마의 주름을 뜯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주름이 너무 답답해서’, ‘치마폭이 좁아서 움직이기 불편해서’, ‘다리가 신경 쓰여 편하게 입으려고’ 등 움직임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 늘이는 것이 유행으로 나타났다. 실용성을 위해서 변형한다고 밝힌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교복을 늘인 경우에 해당하며 상의보다 하의의 품과 길이를 늘이는 경우가 해당되었다. 이는 치마의 착용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바지교복 도입의 필요성으로도 인식할 수 있었다.

이혜경(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교복 변형의 이유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유행이므로’, ‘치수가 맞지 않아서’의 순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치수보다는 유행에 대한 이유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교복변형행동이 교복의 활동성, 맞음새 및 미적측면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것으로 밝힌 고애란(1999)



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밖에 교복변형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대로 입는 것이 더 예쁘다’, ‘줄여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등의 의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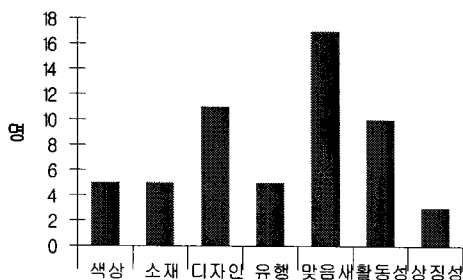
〈표 7〉 교복변형 후 만족정도

	빈도	퍼센트
아주 만족한다	2	8.3
만족한다	15	62.5
보통이다	6	25.0
불만족한다	1	4.2
계	24	100.0

〈표 7〉과 같이, 교복 변형 후 만족도에서는 ‘아주 만족한다’가 8.3%, ‘만족한다’가 62.5%, ‘보통이다’가 25%, ‘불만족한다’가 4.2%로 나타났으며, 변형 후에는 대부분의 학생이 만족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디자인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요소별로 나누어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 교복 디자인 시 고려할 사항



이들은 교복 디자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맞춤새’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디자인’, ‘활동성’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밖에 ‘색상’, ‘소재’, ‘유행’, ‘상징성’ 등을 교복 디자인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맞춤새’와 ‘활동성’ 등 교복의 착용감과 관계되는 요소와 함께 디자인, 유행, 색상, 소재 등 미적인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를 나타내는 ‘상징성’ 역시 교복 디자인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생각하고 있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자 고등학생의 교복변형에 대한 학생의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교복변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청소년들에게 만족스러우면서도 유행 흐름에 부합하는 교복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교복착용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찬성을 90% 이상으로 교복착용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착용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또래집단과의 동일성 추구로 분석되었다.

둘째, 교복만족에 대한 학생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만족이 불만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과 색상면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었으며, 소재나 실용성, 경제성의 측면에서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교복변형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교복변형경험 ‘있다’가 80%로 대부분의 학생이 교복변형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교복 변형 후 대부분의 학생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상의의 경우 주로 품과 길이를 줄여 입으며, 하의의 경우 스커트 길이를 늘리고 주름을 뜬어 늘어 입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교복변형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크게 미적욕구 충족을 위한 변형, 유행을 따라가기 위한 변형, 맞춤새를 위한 변형, 실용성을 위한 변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미적욕구충족을 위해 변형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맞춤새를 위한 변형, 유행을 따르기 위한 변형 순으로 나타났다. 교복 디자인 시 고려사항으로는 ‘맞춤새’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디자인’, ‘활동성’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복 만족도와 교복변형을 비교한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교복 만족정도는 교복변형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기존의 교복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정량적 분석이었던 것과는 달리 심층면접을 통해 교복변

형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등 정성적 분석을 최초로 사용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학생의 의견을 교복선정에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교복변형을 줄이고, 교사·학생·학부모 등 모두가 만족하는 교복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의 교복연구는 조사대상과 조사지역을 넓혀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그 신뢰도를 높이며,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태도도 함께 비교하는 등 조사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며,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설문지 외에 관찰과 면접을 통한 다양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참고문헌

- 고애란, 김양진, 심정은(1999). 여고생의 교복관련 행동과 심리적 특성 및 의복태도의 관련 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Vol. 13.
- 권혜숙(1991). 교복자유화이후 여고생 교복 디자인에 관한 실태조사. 상명대학교 디자인연구. Vol. 21.
- 김순희(1992). 교복착용이 학생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1991). 여자 중학생의 교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1990). 서울시 남·여고교생 교복·자유복 착용에 따른 의복행동과 성역할태도의 차이.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희(2002). 청소년의 소비자 의식과 의복구매행동.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 권숙희, 서추연(1994). 여고생 체형분석에 의한 인태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18, No. 1
- 김혜정(2001). 제주지역 여고생의 교복 변형과 치수만족도 및 교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맹영임, 구정화(2003).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Vol. 1.
- 박현숙(1993).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착용실태 및 선호하는 교복디자인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원숙(2003).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또래수용과 의복태도와의 관련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자(1983). 교복자유화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Vol. 43.
- 이경자(1995).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1996).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 의복관심도, 자아개념-강원도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선재(1982). 여자 중·고등학생의 의복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6, No. 1.
- 이명희(1999).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적응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학회지. Vol. 46.
- 이수희(1988). 여고생 교복과 자유복에 대한 태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에경(2006). 청소년의 의복관심도와 교복만족도 및 교복변형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2000). 교복 변형 실태와 교복 디자인 개선에 관한 연구 - 서울 시내 여고생의 하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주희(2004). 여중·고등학생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하는 교복 디자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홍자(1974). 교복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선진(1997). 청소년 잡지에 나타난 의류광고의 사회적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 복식. Vol. 32.
- 홍선옥(1998). 중·고등학생의 의복태도, 의복착용시 영향집단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Vol. 1, No. 1.
- 교육정책기획관실(2000.3). 여학생의 교복착용 현황 관련 보도자료. Kefga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reance. 2nd ed. New York : McMillian Publishing Co.
- Langner, L(1965). *Clothes and Government, in Roach, ME & Eicher, JR(Eds)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 John Wiley & Sons.
- Ryan, M S(199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John. Wiley. & Sons.

〈면접문항〉

<p>1. 학생의 학교 및 학년을 적어주십시오.</p> <p>2. 신체사이즈를 적어 주십시오. 키 : 몸무게 : 기성복 치수 :</p> <p>3. 착용 교복 사이즈를 적어 주십시오.</p> <p>4. 자신의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5. 자신의 체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6. 교복착용에 대해 본인의 찬반 입장과 찬성 및 반대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p> <p>7. 현재 착용하는 교복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아주만족한다 ②만족한다 ③보통이다 ④불만족한다 ⑤아주불만족한다</p> <p>8. 만족과 불만족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디자인면- ②색상면- ③소재면- ④실용성- ⑤경제성- ⑥기타-</p> <p>9. 교복 변형에 대해 본인의 찬반 입장과 찬성 및 반대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p> <p>10. 교복변형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있다 ②없다</p> <p>11. 만약 교복변형 경험이 있다면 변형한 부위가 어디이며 어떻게 변형을 하였나요?</p> <p>12. 본인이 교복 변형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3. 본인이 교복 변형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변형 후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아주 만족한다 ②만족한다 ③보통이다 ④불만족한다 ⑤아주 불만족한다</p>
--

14. 본인이 교복 변형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5. 교복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6. 현재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서 바꾸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여자 고등학생의 교복변형에 대한 학생의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교복변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청소년들에게 만족스러우면서도 유행흐름에 부합하는 교복을 제안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교복착용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교복착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의 이유로는 또래집단과의 동질성을 들었다.

둘째, 교복만족에 대한 학생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만족이 불만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셋째, 교복변형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교복변형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교복 상의의 경우 주로 품과 길이를 줄여 입으며, 하의의 경우 스커트 길이를 늘이고 주름을 뜯어 늘어 입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심층면접을 통해 교복변형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크게 미적욕구 충족을 위한 변형, 유행을 따라가기 위한 변형, 맞음새를 위한 변형, 실용성을 위한 변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미적욕구충족을 위해 변형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맞음새를 위한 변형, 유행을 따르기 위한 변형 순으로 나타났다. 교복 디자인시 고려사항으로는 '맞음새'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디자인', '활동성' 순이었다.

이상과 같이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의 의견을 교복선정에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교복변형을 줄이고, 학생뿐 아니라 교사·학부모들도 모두가 만족하는 교복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논문접수일자: 2007년 2월 26일, 논문심사일자: 2007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6월 5일